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사상)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윤리와사상

1. 다음 편지를 쓴 사람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어떤 삶이 가치 있는지를 고민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만이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유교 사상은 지난 허물을 반성하고 새로 터득한 것을 실마리 삼아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삶의 자세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 ① 주체적인 판단보다 신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다.
- ② 주어진 운명에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 ③ 성찰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 ④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⑤ 윤리적인 삶보다 감각적인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존재이다.

2.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의 특징과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 A: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사상
예) 유교, 불교, 도가 등
- B: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고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사상
예)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갑: A는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을: B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들을 제시해 줍니다.

병: A와 B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을 ⑤ 을, 병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오직 인(仁)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에 옮기지 말아야 한다.

- ①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②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 ③ 인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사사로운 욕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사회 구성원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⑤ 통치자는 자신을 먼저 수양한 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4. (가), (나), (다) 사상의 공통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성(誠)에 이르면 만물의 성(性)을 온전히 발현하여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고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
- (나) 인드라 그물의 구슬은 다른 것 모두와 서로의 빛을 비추 주고 받으며,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
- (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는다.

<보 기>

- ㄱ. 자연은 인간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이다.
- ㄴ. 세계는 만물이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유기체이다.
- ㄷ.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자연의 정복자이다.
- ㄹ. 인간과 자연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존의 관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법(法)을 보는 자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보는 자이다.
- 어떤 것이 무명(無明)인가? 괴로움[苦]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발생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 ① 무명은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다.
- ②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면 삼독(三毒)을 형성할 수 있다.
- ③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생겨난다.
- ④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멸(生滅)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 ⑤ 열반에 이르기 위해 극단적인 고행(苦行)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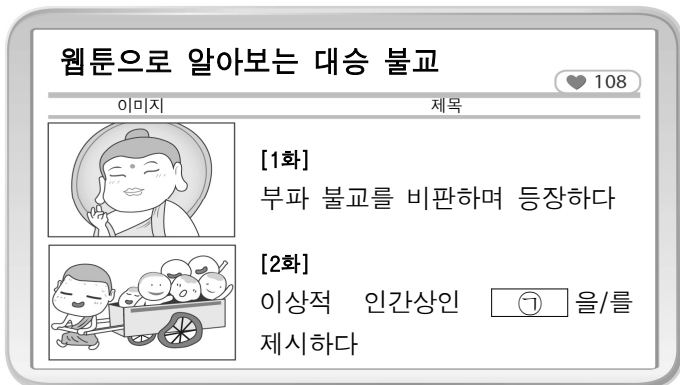
6.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서양의 물건은 모조리 찾아내어 태워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극히 올바른 우리의 도(道)를 밝혀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 나가야 한다.

을: 우리의 도를 행함은 정덕(正德)을 위한 것이고, 서양의 과학기술[器]을 배움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위한 것이기에 병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① 갑: 우리의 정신과 서양의 문물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 ② 갑: 신분 제도의 폐지를 통해 만민 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③ 을: 서양의 정치사상과 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④ 을: 국익 증진을 위해 서양의 모든 기술을 배척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국난 극복을 위해 유교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7.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 ② 수련을 통해 불로장생(不老長生)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 ③ 만물의 평등함을 깨닫고 제물(齊物)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 ④ 대중과 사회로부터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⑤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자 거경궁리(居敬窮理)에 힘쓰는 사람이다.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지인(至人)은 자기의 몸에 얽매이지 않고, 신인(神人)은 공적에 얽매이지 않고, 성인(聖人)은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다.
- 사람들은 모장과 여회를 아름답다고 하지만, 물고기는 보자마자 물속에 숨고, 새는 멀리 날아가고, 사슴은 재빠르게 도망간다.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아름다움을 바르게 안다고 하겠는가?

- ① 예(禮)의 실천을 통해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② 무위(無爲)를 실현하기 위해 규범과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 ③ 마음을 깨끗이 비움[心齋]으로써 타고난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
- ④ 도(道)의 관점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 ⑤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逍遙]를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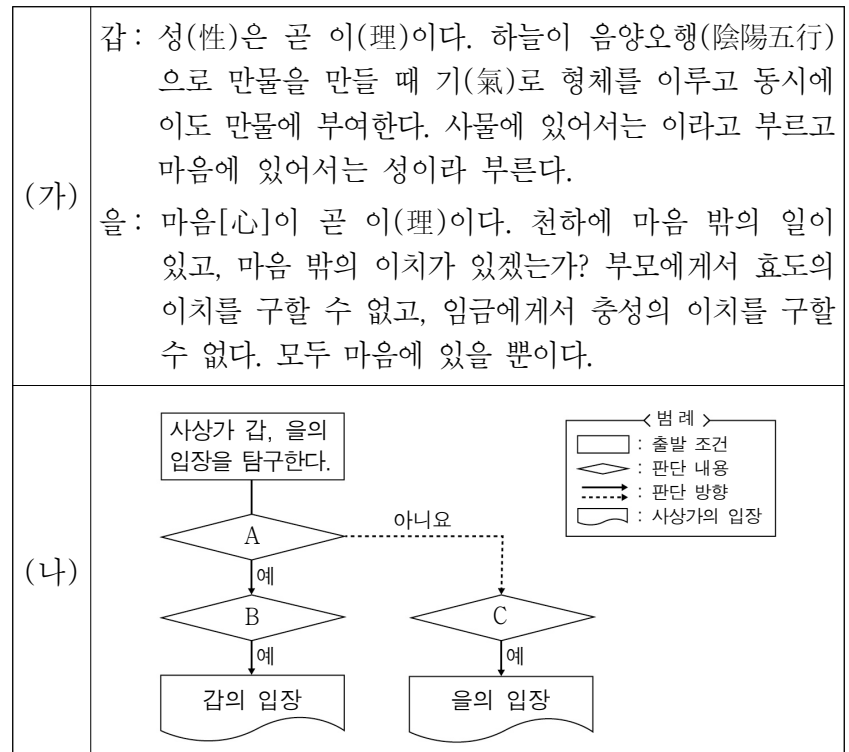
9.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일심(一心)이란 무엇인가?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름이 없으므로 하나[一]라고 한다. 이 둘이 아닌 곳에서 모든 법(法)은 가장 진실되어 허공과 같지 않으며, 그 성품은 스스로 알아차리므로 마음[心]이라 이름한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입장					
종파 간의 차이를 부정하고 경전 해석을 획일화해야 한다.	✓	✓		✓	
화쟁(和諍)을 통해 여러 불교 이론의 다양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	✓	✓
제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해야 한다.	✓			✓	✓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0.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이치는 마음 안에도 있고 마음 밖에도 있는가?
- ㄴ. A: 도덕적 삶과 실천을 일치시키기 위한 수행을 해야 하는가?
- ㄷ. B: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해야 하는가?
- ㄹ. C: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양지(良知)를 획득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덕(德)으로 인(仁)을 행하는 것이 왕도(王道)이다. 힘을 사용하면서 인을 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패도(霸道)이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복종을 얻을 수 없다.

을: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그 나라의 운명은 예(禮)에 달려 있다. 군주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왕자(王者)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霸者)가 된다.

- ① 갑: 인의(仁義)를 해치는 군주는 혁명을 통해 교체될 수 있다.
- ② 갑: 모든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어도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 ③ 을: 군주는 예가 아닌 강력한 형벌에 의한 통치를 시행해야 한다.
- ④ 을: 덕의 유무보다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부국강병(富國強兵)을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1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들의 지식과 기교가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들이 많아진다. 법령이 많아지면 도둑이 많아진다. 성인(聖人)이 무위(無爲)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순화되고, 성인이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성인이 일을 만들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성인이 무욕(無欲)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소박해진다.

<보 기>

ㄱ. 문명과 제도가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ㄴ. 무위로 다스리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지향해야 한다.
ㄷ. 자신을 낮추는 겸허의 덕을 지니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ㄹ. 백성들은 인격 완성을 위해 분별적인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동양 불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업(業)은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없어지지 않는다. 업에 자성이 있다고 하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단멸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공(空)하다.

을: 대승(大乘)에서는 윤회의 세계가 단지 의식[唯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한다. 여기서 ‘단지’라는 말은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경험하는 의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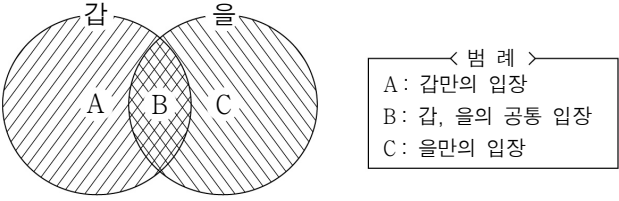
- ① 갑: 자성이 없는 업은 항상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
- ② 갑: 중도(中道)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 ③ 을: 외부 대상[境]은 의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 ④ 을: 해탈은 실재하는 자아를 불변한 것으로 인식한 상태이다.
- ⑤ 갑과 을: 자비의 실천보다 수행자의 깨달음만을 중시해야 한다.

[14 ~ 15]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모두 하나의 정(情)으로서, 칠정 중의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한다. 정은 성(性)이 발하여 된 것으로 오직 기발이승(氣發理乘)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사단은 순수한 이(理)의 발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칠정은 기(氣)의 발이기 때문에 선이나 악으로 흐를 수 있다. 이가 드러나 기가 순응하면 선하게 되고, 기가 가려서 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악하게 된다.

14. 갑, 을의 입장을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 사단과 칠정은 본성이 발현된 감정이다.
ㄴ. B: 칠정은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지닌다.
ㄷ. B: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ㄹ. C: 사단과 칠정이 발현하는 연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의 본성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할 뿐이다. 선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측은지심(惻隱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이 있게 되고, 악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수오지심(羞惡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있게 된다. 네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을 이룰 수 있다.

- ① 사단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부여된 천리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사단과 달리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③ 사단은 사덕이 내재함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사덕은 사단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⑤ 사덕을 실현하려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르면 선을 행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才]의 잘못이 아니다.
- 인(仁)에 머물고 의(義)를 따르면 대인(大人)으로서 할 일이 갖추어지게 된다.

— <보 기> —

- ㄱ. 인간은 누구나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
- ㄴ. 스승의 가르침과 법도로써 성정(性情)을 변화시켜야 한다.
- ㄷ.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
- ㄹ. 대인은 소인과 달리 선천적 도덕 실천 능력[良能]을 지니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은 어떤 학생의 필기 내용 중 일부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 중국 도교의 전개와 특징 >

1. 전한 시대 : 황로학파(黃老學派)
 -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와 노자를 숭상함 ㉠
 - 무위(無爲)로써 다스린다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함 ㉡
2. 후한 시대 : 오두미교(五斗米敎)
 - 교단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쌀 다섯 말을 받음
 - 교리를 따르면 병이 낫고 신선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함 ㉢
3. 위·진 시대 : 현학(玄學)
 -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인 청담(淸談)을 제시함 ㉣
 -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함 ㉤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근대 한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마음을 떠나 한울을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을 떠나 한울을 생각할 수 없으니,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한울을 공경하는 것은 꽃을 따버리고 과실(果實)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을: 일원상(一圓相)을 모시는 것은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의 형체요, 일원상은 부처의 심체(心體)이다. 형체는 인형에 불과하고 심체는 천지 만물의 본원이다.

- ① 갑: 우리의 고유 사상과 서학(西學)을 조화시켜야 한다.
- ② 갑: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 ③ 을: 개인의 종교적 수행과 사회생활은 조화될 수 없다.
- ④ 을: 물질문명의 발전이 정신문명의 발전보다 중요하다.
- ⑤ 갑과 을: 내세(來世)에서만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있다.

19.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목수가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든다면 그릇은 목수의 인위적인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지 목수의 본성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릇 예의와 법도도 성인(聖人)이 생각을 쌓아서 예로부터 내려온 인위적인 것을 습득하여 만든 것이지 사람의 본성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 <보 기> —

- ㄱ. 인간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 ㄴ.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천적인 덕성을 부여받았는가?
- ㄷ.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인가?
- ㄹ. 인간은 본성을 확충하여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중국 불교 사상이자 갑, 한국 불교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신의 본성이 미혹되면 중생이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이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頓悟] 단박에 닦는 것이니[頓修], 점진적 단계라는 것은 없다.

을: 도(道)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하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 두 문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고, 그 닦은 바에 따라 증득[證]하지 않음이 없었다.

- ① 갑: 진리[法]는 마음이 아니라 언어와 문자로 전해야 한다.
- ② 갑: 돈오 이후에 점수를 통해 모든 습기(習氣)를 제거해야 한다.
- ③ 을: 불성(佛性)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오해야 한다.
- ④ 을: 점수의 구체적 방법인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참선보다 교리 공부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